

폭염은 자연재해가 아닌 공동체 사회의 문제

2018년 전체 폭염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111년만의 최악 폭염으로, 40도 이상 역대 7번 가운데 올해에 6번이 발생했다. 전국 관측소 64%가 올해 최고기온을 경신했으며 폭염일 수도 한 31.2일로 최고를 기록했다.

폭염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고, 수많은 건축과 양식장 어패류가 폐죽음을 당했다. 심각한 것은 극한의 폭염이 올해에만 찾아온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는 가마솥더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국립기상학회 연례기후보고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45%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단행하지 않으면 지구의 기온은 2081~2100년 지금보다 2.6~4.8도 더 상승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렇다면 폭염은 사회를 어떻게 바꿨을까. 폭염을 일종의 '사회극'으로 보는 이가 있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조건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것이다.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공공복지 연구소 소장인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폭염 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면민하게 들여다본다. 폭염 사회에서 누군가 사망했다면 공동체 사회의 문제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책은 '시카고트리뷴'의 올해의 책, 전미출판협회 사회학·인류학 분야 최고의 책, 영국사회학회 건강·질병 분야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보스턴글로브'는 "다른 어떤 자연재해보다 폭염으로 인해 숨지는 미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폭염 사회

에릭 클라이넨버그 지음, 홍경탁 옮김

국민이 가장 많다"며 "클라이넨버그는 이 책에서 그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강렬하고, 정신을 번쩍 뜨이게 하며 철저하게 조사된 책"이라고 평했다.

지난 1995년 시카고에서는 폭염으로 7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저자는 희생자들이 살던 거처에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단서가 돼줄 사회적 요인들을 접하게 된다.

희생자는 대부분 노인, 빈곤층, 1인가구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거주지는 하나같이 사회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임대주택이나 원룸 주거시설이었다.

저자는 시카고의 인접한 두 지역 노스루데일과 리틀리지를 비교 분석한다. 폭염 당시 유사한 위험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피해자 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노스루데일은 19명이 사망한 반면, 리틀리지는 10분의 1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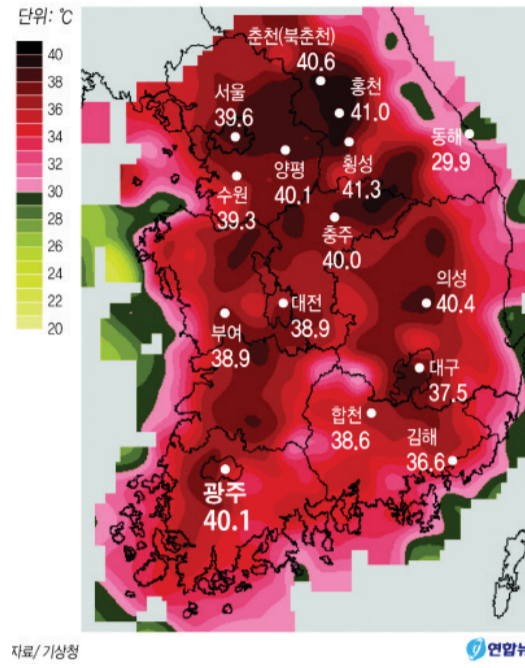
리틀리지는 밀집 주거지역으로 변화한 거리와

1995년 700여명 사망 '시카고 대참사' 대부분 노인·빈곤층

폭염 재난은 그 사회의 정치적·구조적 실패 의미

취약계층 문제 해결 못하면 극단 디스토피아적 징후 발생

'사상 최악 폭염' 1일 지역별 최고기온



왕성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사회적 접촉과 공공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노인을 또한 주변 편의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폭염으로 적조가 발생한 여수시 남면 하해도 해상에서 적조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광주일보 자료>

그러나 노스루데일은 흥성했던 공업이 쇠퇴하면서 버려진 건물이 많았고 범죄 발생도 많았다. 노인들은 낙후되고 위험한 환경 탓에 거리에 자주 나가

지 않았다. 방에서 홀로 폭염을 견딘 것이 가장 큰 재난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수백 명이 집에서 친구나 가족의 보호 혹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다는 사실은 사회적 붕괴가 일어났다는 신호다. 여기에는 공동체, 이웃, 사회적 관계, 정부 기관, 경고 신호를 보낼 책임이 있는 언론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저자는 시카고의 공공기관들은 1995년 폭염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한다. 기업가적인 정부 모델 영항으로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시민을 소비자로서 대하는 것이 주 원인이었다는 것.

민간단체에 많은 분야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들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이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

환경학자들은 향후 폭염이 심해질 거라고 내다봤다. 폭염이 거의 육지 전체에 나타날 가능성도 90~99%로 예상했다. 기상학자 폴 더글러스는 "1995년 시카고 대참사는 앞으로 다가올 일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극단의 디스토피아적인 징후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글항아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김연수 외 지음 '한국 작가가 읽은 세계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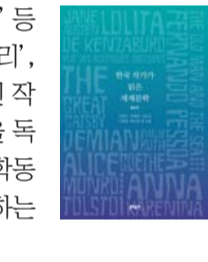
'햄릿',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안나카레니나', '노인과 바다' 등은 불멸의 고전이다. 이 밖에 '제5도살장',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한밤의 아이들', '미국의 목가' 등도 현대 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작품들이다. 한국 대표 작가들이 세계 문학 작품을 읽고 쓴 감상문을 독자와 함께 나누는 '한국 작가가 읽은 세계문학'이 출간됐다.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를 통해 2년 여간 연재돼 발간된 책에는 내로라하는 작가와 평론가 등의 글이 담겨 있다.

책에 함께한 작가들은 모두 134명. 황석영, 황정은, 김연수, 편혜영, 정지돈, 이기호, 손보미, 성석제, 김영하, 김금희 등 세대를 아우르는 소설가를 비롯해 시인 허수경, 정갈별, 이병률, 유희경 등이 참여했다. 또한 황중연, 권희철 평론가, 사회학자 정수복과 김홍중, '로자'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서평가 이현우, 라디오 PD 정혜윤 등 면면도 다양하다.

내면을 응시하는 이해경은 '위대한 개츠비'를,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한 김민정은 앤절라카터의 소설 '피로 물든 방'을,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 공감하는 소설가 김에란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참상을 시로 표현한 헤르타 및러의 '숨그네'를 골랐다.

또한 소설가 김인숙은 톨스토이의 역사 '전쟁과 평화',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견지하는 최은영은 엘리스 먼로의 걸작 '더 라이프'를 읽었다.

도정일 평론가는 서문에서 "세계문학전집은 인간의 손에서 문학이란 것이 창조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 작은 유성의 동서남북으로부터 견져올려진 최상급의,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고전, 명작, 혹은 걸작 등등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작품들을 선별적으로 집성해놓은 문학 컬렉션"이라고 밝혔다.



<문학동네·8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빈센트 디마이오 외 지음, 윤정숙 옮김 '진실을 읽는 시간'

현장에 남아 있는 흔적들과 상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목격자는 없을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법의학자는 다양한 퍼즐 조각을 끊임없이 맞추면서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어낸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읽어내는 과정이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실제 범죄사건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법의학의 세계를 다룬 범죄 실화 소설인 '진실을 읽는 시간'이 출간됐다. 법의학자인 빈센트 디 마이오와 베테랑 범죄 작가인 론 프랜셀이 명쾌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영안실로 안내한다. 미국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법의학자이자 내부인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미스터리아. '라이브러리 저널'은 "법의학, 의학 수사, 정의, 법정 드라마, 형법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이 책이 정말 미치도록 탐날 것이다"고 평했다.

2012년 초 미국에서 인종 갈등의 불씨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 10대 청소년 마틴 트레이니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지머맨이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미국 전역에 거대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흑인 지도자들이 인종차별을 외쳤고 순식간에 130만 명이 지머맨의 체포를 요구하는 서명도 동참했다. 저자는 법정에서 나가 총이 발사되는 순간 마틴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음을 증명했다. 결국 배심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많은 이들이 흑백문제에 비호했지만 그것은 과잉대응으로 일어난 불운한 사건이었다. 사건 중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진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도 있다. 저자는 고흐의 총상 부위가 스스로 총을 쏘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근거로 타살을 주장한다. 저자는 미술계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법의학적 증거들이 의미하는 진실을 외면한다고 강조한다.



<소소의 책·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브라운스톤 지음 '부의 본능'

우리 안에는 부자 되는 결 배해하는 아홉 가지 심리적 장애물이 있다. 무리 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 손실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 환상, 마녀 환상, 인식체계의 오류 등 원시시대부터 유전자에 식재되어 있는 본능이 그 원흉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한 저자 브라운스톤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일간지 등에 등에 칼럼을 쓰며 이름을 알렸다.

이번에 펴낸 '부의 본능'은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이라는 부제와 같이 아홉 가지 내면의 장애물의 속성과 이를 극복하는 실천 투자법을 제시한 책이다. 그동안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등을 펴냈다.

이번 책에는 부의 본능을 일깨우는 여덟 가지 도구와 열 가지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별 투자 가이드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 만들기 지침을 전수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가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향후 5년간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테크 초기, 저자는 결혼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서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실패를 통해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재기에 성공한 뒤 40대에 은퇴해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트트·1만38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4시공후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